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10. 에베소교회

2013. 03. 1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에 계시록 1장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장의 에베소 교회의 기별을 살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달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1~7]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2장을 시작하면서 일곱 교회의 뜻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지요? 그 이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 예, 그렇게 합시다. 2,3장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을 하더라도 그 뜻을 한 번 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제일, 또는 부러워할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교회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되고 부흥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지요. 정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제일이었고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다음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沒藥) 감람과의 교목(喬木)인데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 분포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방향(芳香) 및 방부제로 쓰고 즙액은 향수, 의약품, 구강 소독 및 통경제(通經劑), 건위제 등에 쓰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두드릴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핍박받는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기에 합당하지요.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의 향기가 더욱 짙게 드러나서 널리 멀리 퍼졌습니다. 버가모는 성채(城砦), 또는 높이 들린다는 뜻인데요, 교회가 핍박시대를 지나서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는 시대의 교회를 드러내기에 아주 적절한 이름입니다. 다음이 두아디아라인데요, 달콤한 수고의 향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버가모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자 세속화하지요, 그 시대의 끝쯤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수고를 하고 개혁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시대를 뜻하기에 합당한 이름이지요. 다음은 사데입니다. 사데는 “기쁨의 노래”, 또는 “남은 것”, “남은 자의 도망” 등의 뜻이라고 합니

다. 수고의 향기를 퍼뜨린 시대가 지나면서 그 복음의 향기를 따라 진리를 회복하고 믿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시대에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아디라 시대의 어려움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시대의 교회를 뜻하지요. 곧 개혁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빌라델비아인데, 이것은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사대 시대가 지나면서 진리가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지 못할 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개혁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일하는 시대의 교회를 표현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디게아는 의롭다고 선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심판 시대에 교회를 상징하기에 알맞지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다른 교회들, 편지서에 기록된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이름의 뜻과 도시들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 일곱 교회가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일곱 시대의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는 교회 역사가 샤프도 있는데요, 그는 이것을 1, 사도시대, 2, 환난과 핍박시대, 3, 국가와 교회의 연합 타협시대, 4, 중세시대, 5, 종교개혁시대, 6,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7, 무 신앙과 세계선교 시대로 분류했습니다. 엘렌 화잇은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일곱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 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행적 585)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교회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교회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 교회에 특별히 해당되면서 영적으로는 각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각 시대 모든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시대 교회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은 바른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교회씩 살피기 전에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먼저 살펴본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먼저 에베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 그렇게 해야지요.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은 “부러워할 만하다. 제일”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 속주 중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첫째, 에베소는 시리아에서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대로인 서쪽 종착지에 위치했는데, 에게해의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이며 유프라테스에서 라오디게아를 경유하여 에베소까지 이르면서 동방의 산물이 종착하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Artemis) 여신상이 있어서 미신이 성행하였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셋째,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트라테고이'(Strategoi)라는 독자적 행정관이 있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 기관으로서 '볼레'(Boule)라는 민회관과 순회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명목상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수도가 되었지요.

바울이 AD 52년경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그곳에 전했는데, 그때 그는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향해 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당시 그곳에 정착해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과 함께 약 1, 2년 후에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복음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행18:19~19:7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약 3년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업이 그곳에서 특별히 결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누가는 행19:10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3년 동안에 최소한 아시아에 있는 다른 몇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후에 아마도 AD 64년경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여 디모데에게 책임을 넘겨 준 것 같아 보입니다.

[딤펴전1:3,4]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그다음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기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역사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은 추측컨대 유다와 로마의 전쟁 동안, AD 68년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교 본부가 해체도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는 교회의 지도적인 중심지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첫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의 뜻과 출발지로 선택된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사도시대, 곧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교회가 출발하는 초기 교회 시대인 31년부터 대략 100년까지 미치는 기간에 전체 교회의 상태를 충분히 상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교회를 첫째로 선택하시고 교회 역사의 출발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를 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도적 순결의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특성을 지닌 시대로 보기에 손색이 없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그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도 합당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표상을 삼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 역사적 기간 중에 시작 당시의 교회의 상태를 에베소 교회가 표상하기에 알맞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 예, 이미 말했지만,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말씀 안에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사적 진행, 혹은 발전을 일곱 교회의 지리적 위치와 그 이름들의 뜻과 편지 내용으로 계시해주셨다는 말이지요.

4.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답: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구절을 다 봉독했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2장에는 각 교회마다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지요. 여기에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수신인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교회의 사자가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는 편지를 받아서 잘 읽고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서 교인들에게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를 보면 왕 한사람이 어떤가에 따라 나라가 좌우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지요. 만년 적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브라질이 룰라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맡더니 그의 재임기간에 나라의 빛을 말끔히 닦고 경제자립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내적 외적 상태가 형성됩니다. 영성 있고 지혜가 있고 목회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교회를 맡으면 그 교회는 그 지도자의 키만큼 자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를 편지 수신인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만하지요?

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사자를 수신인으로 하셨네요. 그 숨은 의미를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발신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다릅니다. 왜 그렇지요?

답: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각각 달라도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 중에 일부들일 뿐입니다. 그중에서 편지를 받는 교회의 사정에 맞추어서 발신인이신 예수님의 신원을 소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소개합니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전 교회 역사의 시작하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시작에서부터 교회의 지도자를 친히 손 안에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붙잡고라는 말은 그냥 느슨하게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힘 있게 꼭 잡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크라테오는 1:16절에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라는 말보다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1:16에 “있고”는 헬라어로 “에코”인데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2:1에 크라테오는 에코보다 훨씬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를 예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려고 하지요.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면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시장에 구경거리가 많으면 아이는 엄마 손에서 놓여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손이 엄마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면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것 구경하려고 종종걸음을 치지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 잃어버릴까봐 조바심을 내면 따라가지요. 그래서 아이는 제가 엄마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구경거리가 있으면 얼른 손을 놓고 그리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처럼 자기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손에 꼭 잡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잡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손에 잡혀 있으면 예수께서는 그를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이 빼앗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6.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붙들고 계시면 정말 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 주위에서 흔들어대는 것이지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주위에서 흔들 때 스스로 흔들리면 예수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럴 땐 예수께서 놓아주시지

요. 예수님은 결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가 예수님 손에 굳게 잡혀있는 한 교회는 안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스스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맞을 때만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 손을 얼른 놓고 딴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7. 비극입니다.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한국 교회가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답: 글썄요. 서구의 교회들은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로 믿지 않는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사회에 있는 한 인간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는 하지요. 말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만하고 계시록 이야기 합시다. 일곱별을 오른 손에 꼭 잡고 계시는 것을 소개하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돌보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출발하는 교회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을 친히 살피시는 봉사를 나타내지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관심이 당신이 친히 반석 되시는 당신 자신 위에 세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이 죄의 세상에 세워둔 생명의 복음을 사망의 땅에 증거해야 하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교두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것은 그분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8.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답: 먼저 말씀을 다시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계2:2,3]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 거의 비슷한데요, 먼저 칭찬할 일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다음에 책망할 일을 책망하는 순서입니다. 사람에게 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무시키고 발전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은 칭찬할만한 것이 있을 때에는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할 경험들을 계시해주시는데, 많은 경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승리에 대한 보증을 하시고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순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상태이지요. 창세기 3: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순서가 반대지요. 즉 뱀이 먼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없이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심으로 승리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승리를 보증하시는 영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따라 에베소 교회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네 행위와 수고

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9.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답: 그렇지요. 여기 표현한 단어들은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시대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들이에요. “행위”라는 헬라어 “에르가”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며, “수고”는 “코폰”인데, 고통스런 노동을 동반할 최선의 노력을 가리키고, “인내”는 헬라어 “히포모넨”은 “히포”와 “메노”의 합성어인데 히포는 밑에라는 뜻이고 모넨은 머문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행위, 수고, 인내”가 차례대로 언급된 것은 마치 살전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차례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수고와 인내를 행위의 내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10.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태가 1세기의 교회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답: 예, 그렇지요. 1세기 교회는 바로 사도시대교회가 아닙니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유대인의 핍박과 이방인의 핍박과 정부의 압박과 그런 모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인내로 교회를 세우고 확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런 수고를 했다면 1세기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런 수고 코폰을 한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를 내었지요. 네로황제 때의 핍박과 도미시안황제 때의 핍박은 대표적인 환난이었지요. 정말 히포모네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로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온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다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를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노스코는 배우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편인데 반해서 오이다는 직관적으로 아는 것, 또는 생략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에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 중에 모든 것을 아시오니라는 말이 오이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기노스코입니다.

11.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초대 교회 당시에 복음을 변조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사단은 이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했으니까요. 당시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는 가현설도 있는데 다 복음을 변조시키려는 주장이었지요. 이런 주장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주

장입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몸은 환상일 뿐이다. 예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왔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받은 것도 환상일 뿐이며,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도 다 환상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사도요한과 교회를 무척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여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었지요. 영지주의 외에도 복음을 변조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악한 자들인데 에베소 교회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에베소 시대 교회도 이것을 잘 분별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악한 자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자 개개인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12.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기별을 연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오른 손에 잡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눈여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주위 자녀가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